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MONUMENTS

가제 : 모뉴먼트

저자 : Will Kostakis

출판사: Hachette Australia

발행일: 2019년 가을

분량 : 약 300 페이지

장르 : 판타지



*** 학교 지하에서 수백 년간 봉인된 ‘모뉴먼트’를 발견한 세 명의 친구들 - 엄청난 능력과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 아이들의 박진감 넘치는 모험을 그린 판타지 소설**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닌 친구 올리와 3주째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지낸 후 코너는 이 난데없는 냉각 상황을 직접 끝내기로 결심한다. ‘너무 지루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선언한 올리에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코너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개방되는 별관 옥상 종탑으로 오라고 올리에게 문자를 보낸다. 지은 지 100년이 넘는 그 건물은 평상시에 학생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고등학교 졸업을 1-2년 앞둔 시기가 되어서야 몇몇 학생들에게 청소와 관리를 나누어 맡겼다. 코너는 매일 아침 등교하면 종탑 옆에 있는 계양대를 작동시켜 깃발 두 개를 위로 올리고, 하교 시간에 다시 와서 깃발을 내리는 일을 맡았다. 자신이 일하는 구역에 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은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을 깨고 종탑으로 초대했으니, 올리도 마음이 바뀔 거란 생각으로 코너는 괜한 기대감에 부풀다. 하지만 친구와 화해하려던 이 시도가 목숨을 건 모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호주 출신의 젊은 작가는 총 2부작으로 완성될 판타지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인 이 책에서 시드니를 배경으로 유서 깊은 고등학교에 숨겨진 신비한 존재들과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존재들을 직접 구하러 나선 세 명의 친구들이 맞닥뜨린 위험과 모험을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되는 청소년기, 무기력함과 무력함에 찌든 십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기발한 상상력과 신화, 마법과 함께 보여준다.

문자로 알려준 시각까지 올리가 나타나지 않자, 코너는 이제 둘 사이의 우정이 완전히 끝났음을 체감한다. 허탈한 마음으로 1교시가 시작하기 전 교실로 급히 돌아가려다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달려가던 코너는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멀리서 올리 목소리가 들리자 무작정 몸을 숨긴다. 멍청이 같은 모습으로 마주치면 올리가 새로 어울려 지내는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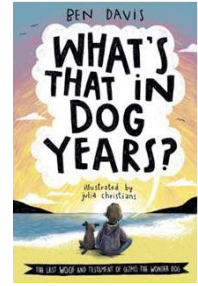
려 났 것이 뻘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다닥 몸을 숨긴 복도 구석에서 코너는 탱크 뚜껑처럼 묵직한 쇠문 손잡이를 발견한다. 호기심에 들어올려보니 무겁긴 해도 젓힐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코너는 점점 가까워지는 울리의 목소리를 피해 얼른 그 알 수 없는 지하 통로로 들어간다. 축축한 흙 냄새가 가득한 통로를 따라 내려간 코너는 휴대전화 불빛으로 간신히 천장에 딱 하나 대롱대롱 매달린 전등을 켜다. 눈 앞에 나타난 건 사무실처럼 보이는 작은 방이었다. 희한한 것은 타일이 깔린 바닥과 천장이 마치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힌 것 같은 모습이라는 점이다. 코너가 밟고 있는 쪽에 푸르른 하늘색과 태양으로 보이는 환한 원이 있고, 전등이 매달린 천장 쪽이 분명 땅인 것 같았다. 방 안에 있는 가구는 작은 책상과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책상 한 쪽에 놓인 자그마한 노트를 발견한 울리는 가까이 다가가 가죽 표지를 살짝 들춰본다. 하지만 어느 나라 글자인지, 혹은 글자인지 그림인지 확신할 수 없는 기호 같은 것들만 빈 페이지에 채워져 있었다. 어차피 수업에 늦은 이상 다음 수업까지 그곳에서 죽치고 있기로 마음 먹은 순간, 코너는 조금 전 들어올린 쇠문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 다급히 책상 뒤에 엉겨주춤 몸을 숨긴 코너 앞에 낯선 여학생이 모습을 나타냈다. 학생부터 교직원, 일반 직원들을 통틀어 여성은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이 고등학교에, 학교에서 학생 대표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교복을 입고 나타난 여학생은 기겁하는 코너와 달리 별로 놀란 것 같지도 않았다.

코너에게 지하 통로를 언제 발견했는지, 이곳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또 있는지 캐물은 뒤 얼른 나가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여학생의 태도에 순간 발끈한 코너는 호기심이 생긴다. 억지로 내보내기는 글렀음을 깨달은 샬리라는 이름의 이 여학생은 방의 천장과 바닥이 뒤바뀐 것 같다는 코너의 말에 눈을 빛내더니, 책상 밑에서 버튼을 찾아낸다. 버튼을 누른 순간, 주위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이고 뼈격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벽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전등이 꺼지고, 어둠과 먼지 속에서 몇 번 더 벽을 회전 시킨 후, 샬리와 코너의 눈 앞에 뿜 뿜된 지하 터널이 나타난다. 터널 입구에 석상으로 보이는 거구의 남자 형상이 나타나자, 샬리는 곧바로 그를 알아본다. 수백 년째 대를 이어 지켜온 신들 중 하나인 다로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어리둥절하던 코너는 샬리의 가문이 오래 전 깊은 산속에 스스로 몸을 숨긴 신들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며, 샬리는 이들의 평온한 휴식을 위협하는 일이 생겼음을 알고 유해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상을 만들어낸 위대한 신들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자진해서 몸을 숨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숨은 위치를 알아내려는 자들,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샬리와 코너, 그리고 코너의 새 친구가 된 록키는 신들이 부여한 막강한 힘과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그 비밀을 풀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다.

<저자 소개>

윌 코스타키스(Will Kostakis)는 열아홉 살에 『Loathing Lola』로 데뷔했다. 두 번째 소설 『The First Third』는 2014 골드 잉키 어워드를 수상하고 호주 아동도서위원회 올해의 책, 호주 총리문학상 결승에 올랐다. 이어 미국에서도 출간된 『The Sidekicks』를 발표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단편집으로 시드니 모닝헤럴드 올해의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제목 : WHAT'S THAT IN DOG YEARS?
가제 : 잘 가, 기즈모
저자 : Ben Davis(글), Julia Christians(그림)
출판사: OUP Oxford
발행일: 2019년 7월 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문학



*** 곧 세상을 떠날 반려견과 다정한 소년의 감동적인 마지막 여행 - 따뜻한 감성과 배꼽 잡는 유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이야기와 귀여운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책**

사람으로 치면 일흔 여덟 살이 된 반려견 기즈모와 함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수의사의 설명은 조지에게 폭탄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조지가 아주 어릴 때, 꼬물꼬물 기어다니던 강아지로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기즈모는 조지의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물론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한 가장 좋은 친구이자 마음 속에 맺힌 말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아빠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집을 떠났을 때, 끝내 부모님이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일어난 번잡스럽고 속 시끄러운 일들을 조지가 가까스로 견딜 수 있었던 건 전부 기즈모 덕분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 장애가 찾아왔을 때도 조지는 자신과 기즈모를 주인공으로 한 '울트라 보이와 원더 독'이라는 판타지 동화를 쓰면서 울컥 솟아나는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 최근에는 다섯 살 때부터 단짝이던 친구 매트가 하루도 빠짐없이 조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못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고 조지는 대놓고 무시하는 통에 속상해서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마다 기즈모가, 오직 기즈모만이 위로하듯 곁을 지켜주었다. 이 사랑스럽고 돌도 없는 가족이자 친구를 영원히 떠나 보낼 준비를 하라니 조지는 눈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절대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 하나로. 조지는 기즈모의 남은 생을 최고로 만들어주리라 결심한다. 기즈모를 위한 '버킷 리스트'는 이렇게 탄생했다.

소설은 조지와 기즈모의 시각을 번갈아 따라가며 아이스크림 먹기, 맛있는 음식과 왓자지껄하게 떠는 사람들, 기즈모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가 한 자리에 있는 파티에 참석하기, 멋지게 차려 입은 기즈모 사진으로 달력 만들기, 캠핑 하기, 듬뿍 사랑 표현하기와 함께 '꿀든 비치에서 휴가 보내기' 같은 항목으로 채워진 버킷 리스트가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을 들려준다. 사람이 사랑하는 반려견을 보는 마음,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반려견의 시각을 동시에 들려주는 독특한 구성과 둘의 특징을 재미 있게 살린 일러스트는 집에서나 학교에서 부모님의 이혼과 동급생들의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겪지만 나름의 웃음과 희망을 찾아가려 애쓰는 조지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기즈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멋진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지의 고투는 리브라는 새 친구가 나타나면서 더욱 흥미진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개는 훈련하기 힘들다고 알려졌지만, 리브는 자신이 기즈모를 훈련

시켜서 반려견의 특별한 재능을 뽐내는 쇼에 데리고 나가겠다고 선언한다. 기즈모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개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조지는 리브의 야심만만한 도전을 도우면서도 영 확신할 수 없었지만 기즈모는 우승을 떠내는 기염을 토한다. 골든 비치로 갈 수 있는 비용을 모아야 하는 조지에게는 뜻밖의 성과이기도 했다. 아빠와 이혼한 후부터 엄마는 아침저녁으로 일을 하지만 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예전처럼 장을 자주 보러 가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 장을 보더라도 할인점에 가서 가장 저렴한 물건들만 사오는 것이 전부라 기즈모의 간식이나 기즈모에게 필요한 것들은 늘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 개를 데리고 해변에 간다는 이유로 용돈을 얻을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조지가 기즈모와 꼭 함께 가고 싶은 골든 비치는 조지의 기억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종지부를 찍은 곳이었기에 엄마아빠 중 누구도 다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수년 전, 아직 부모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다 함께 골든 비치로 휴가를 갔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철없는 나이였던 조지는 해변가에서 거대한 바위를 발견하고 혼자 열심히 기어 오르기 시작했다. 따라온 건 기즈모 뿐이었다. 겨우겨우 꼭대기에 도착해서 기뻐하던 찰나, 바위에서 떨어진 조지는 머리를 다쳐 정신을 잃고 말았다. 기즈모가 미친듯이 짖고 사람들의 주위를 끌어서 부모님이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조지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었다. 기즈모 덕분에 더 큰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날 이후 충격에 빠진 부모님의 관계는 뼈격대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조지는 방안에 틀어박혀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고 불안에 떨었다. 터질 듯이 쿵광대는 심장은 기즈모의 애뜻한 눈빛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다정한 몸짓에 겨우 조금씩 진정되곤 했다. 그러니 골든 비치는 조지에게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소중한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부모님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곳이었다.

엄마아빠에게 손 벌리지 않고 기즈모와 골든 비치에 가려던 조지의 계획은 수의사가 안락사를 제안하면서 큰 난관에 부딪힌다. 포기를 모르는 조지는 리브의 도움으로 기즈모를 병원에서 몰래 빼내는데 성공하고, 셋은 변호판에 골든 비치와 가까운 지역의 이름이 적힌 낫선 밴에 무작정 몰래 숨어 탄다. 어느 창고 앞에 차가 멈춘 후에야 조지와 리브는 그 차가 범죄 후 도주 중인 형악한 자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즈모의 맹렬한 공격으로 겨우 무서운 사람들 손아귀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지만 과연 골든 비치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 조지와 기즈모, 리브가 의도치 않게 벌이는 귀여운 소동들이 절로 웃음 짓게 하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벤 데이비스(Ben Davis)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십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재미 있는 책을 써왔다. 저서로는 『The Private Blog of Joe Cowley』 시리즈와 『Danny Dread』, 『My Embarrassing Dad's Gone Viral』 등이 있다.

줄리아 크리스천(Julia Christians)은 브런스윅 예술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해 왔다.